

## IMF와 건축사사무소의 소생대책

### The Recovery from the Crisis

오웅석 / (주)신조종합건축사사무소  
by Oh Woong-Suk

IMF는 건축문화와 그 관련산업에 가장 큰 타격을 주었다. 우리 정부와 국민모두는 하나가 되어 어렵게나마 고비를 넘겼고 국제적인 신임도도 상향조정되었다. 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부와 경제인 그리고 모든 고통을 분담하였던 모두에게 마음속으로부터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러나 나라안에서는 희비가 엇갈린 문제점도 많이 나타났다. 많은 업체가 부도로 쓰러졌고 그 피해는 결국 그 경영주뿐만 아니라 그 거래인 그리고 각 개개인에게 안겨졌다. 서로가 받을 돈이 있으면서도 줄 돈을 못줘 빚쟁이가 되었고 장기간 생활비 공급이 안돼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돈 걱정이 없는 부유층 사람들이나 매달 생활비가 공급되고 있는 공기관 그리고 대기업에 근무하는 일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 고통을 느낄 기회가 적었다.

IMF의 말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그로 인해 모든 분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나 부도 등과 같은 그 처절한 고통의 상황을 실제 피부로 느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당연히 큰일부터 먼저 해나가야하며 모든 국민은 그 기대하였던 성과가 개개인에게 되돌아올 때까지 참고 견뎌 나가야 한다. 그러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로서는 그 쓰라림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 벼랑끝에서 마지막 선택까지 생각해야 할 시점까지 온 것이 아닌가 싶다.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들리는 말에 의하면 대부분이 아직까지도 개점휴업 상태라고 한다.

나는 작은 건축설계사무소를 자영하고 있다. 평생을 외길로 살며 오직 일에만 전념하며 큰 욕심도 없이 살다보니 남에게 욕은 먹지않고 지내왔으나, IMF경제 위기를 이겨낼만한 저력은 쌓아놓지 못하였다. 나의 경우에는 많은 일거리를 안고도 일이 중단이 되거나 뒤로 밀려나가게 되고 해놓은 일은 수금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말아놓은 일이 없었다면 폐업을 하고 들어앉아 혼자 살 궁리나 하겠으나 맡은 일의 책임을 벗을 수 있는 입장도 못된다. 부끄러운 일이나 직원 봉급도, 사무실운영비도 결국은 몇

달 못가서 바닥이 나고 들어올 일의 대가는 계속뒤로 밀려나가게 되니 결국은 은행거래마저 문제가 생기고 세금 등 공과금도 못낸 부실경영자가 돼버려 집에서도 큰소리를 칠 수 없는 가장으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아직 계약되어 있는 업무도 상당히 있으며, 수금이 확정된 상태의 채권화된 청구금액도 모든 빚을 갚고 회사의 운영을 정상화할 만큼 있다. 다만, 필요한 자금이 흐르지 않고 있는 것이며 마치 가뭄에 뉘장리 연못에 물이 고인다음 넘치는 물을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신세가 된 것이다.

1999년 올해는 정부에서 지정한 건축문화의 해이다.

건물은 사람들의 생활을 담는 그릇이고, 도시는 건축물의 집단화로 이루어지며 사회생활을 담는 그릇이다. 기능적이고 편리하고 아름다워야하며, 쾌적한 환경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이룩되어야 한다. 현대문명은 건축문화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손꼽히는 역사적인 유물도 건축물이 모체가 되어 가장 큰 존재로 자리잡고 있다. 오늘날의 건축문화는 긴 역사속에서 먼 후손들에게 전해지며 큰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 그러기에 어느 한순간도 어떤 이유로도 중단되거나 소홀이 취급되어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어려운 경제적 사회현실속에서도 그 역할의 그 자리와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 건축계에서 일하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이나 정부에서까지도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일은 IMF가 아무리 어려워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정면돌파해 나가야 한다.

건축문화의 주역은 건축사이며, 그 일은 건축사사무소에서 이루어진다. 건축문화의 꽃이 피게 하고 건설관련산업 활성화를 이룩하려면 대대적인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금융지원 등 육성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방안을 만든다 하여도 금융관리차원에서 실효성을 잃게 될 가능성이 많다. 금융업의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겠으나, 담보나 보증제도 등을 앞세운다면 머리를 쓰며 시간을 보내는 건축문화 창작업무 종사자들이 모여있는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금융지원은 실효성이 있을 수 없다. 대출된 돈을 딴 목적으로 쓰지 않겠다는 약속만 이행된다면 건축문화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저변에 깔려 쌓여나가는 성과에도 비중을 크게 두어야 할 것이며, 금방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그 성과는 머리속에 쌓여나가 언젠가는 더 큰 성과를 창출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기간산업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십조원 단위의 무담보대출로 인한 손실은 감수하면서도, 창의력을 기르거나 새로운 연구에 투자하는 일에서 물건담보나 따지고 있는 방식을 고수한다면 영원히 후진국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선진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례처럼 계약서 한 장으로 용자를 가름하는 간편한 지원대책으로 대담한 용자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우리 스스로도 먼저 자구책을 내세워 새로운 면을 보이며 전문 직업인으로서 정성을 다하여 일하는 자세를 먼저 보이기도 하여야 할 것이다.

사후 약방문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협회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